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그라운드



무상(無常)은 현실이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무상이라는 단어이다. 인생무상이니 제법무상이니 정치무상이니 하여 변화와 함께 감상적인 선택엔탈리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혹자는 무상이란 단어로 인해 불교를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종교로 오인하기도 한다.

무상이란 말은 변화란 의미이다. 변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방향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대부분은 그 방향이 좋은 쪽으로 바뀌길 바라지만 반드시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무상을 좋은 방향에서 나쁜 방향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을 때 흔히 사용한다. 이때는 일종의 패배 내지 체념 의식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무상이란 법어 아니티아를 번역한 말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니티아의 부정어이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시실린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변화 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

는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잡아함경>>권3, <정정경>에 의하면 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비구들이여, 색(물질)은 무상이다...수(감수작용)은 무상이다...상(표상작용)은 무상이다...행(의지작용)은 무상이다...식(지적 분별력)은 무상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고이다.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무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본체도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 그 마음은 집착하는 것이 없고, 번뇌를 벗어나 해탈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법을 한 뒤에 이어서 색수상행식오온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번뇌를 벗어나 해탈한다면 해탈할기 때문에 돌요하지 않고, 돌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며, 만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열반에 도달하게 되고, ‘내 방황의 삶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야할 것은 이미 다 하였다. 이후에 다시 방황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사실 이상에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것 없어 현실직시, 미래의 삶 준비 해야

다. 변화 보다는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상이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현실성 때문에 부처님은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무상을 꼽고 있다. 흔히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표현되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제행(諸行)이란 일체의 의식의 흐름이란 의미이다. 행(行)이란 단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의지의 작용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간다는 의미의 행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자이를 유지하거나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를 결합하고자 하는 강한 힘을 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역시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교리적인 입장에서 무상에 대한 의미를 이상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인도 사회의 문화사상사적인 입장에선 브라만교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특히 이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아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아는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브라만교의 가르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급제도를 논리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었다. 반면 불교에서는 무아론과 무상론을 설파하므로써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인간

의 요소 혹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의 무상함을 관찰함으로써 인간들은 번뇌를 벗어나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동시에 윤회의 삶을 벗어나 대자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방황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여기서 물질도 변하는 것이지만 정신의 변화에 무게의 중심을 두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인간들의 정신이 무상함을 느끼는 일이야말로 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상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위, 부귀, 명예, 재물 등이 무상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상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준비와 노력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것에 만족할 여유가 없고, 오직 앞을 내다볼 수 있다. 때문에 준비와 노력을 통해 무상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깨워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상을 알기에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동국학원에서 32년간 교육불사를 해온 녹원스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남산의 나무들이 그 무성하던 잎들을 다 떨구어 내고 알몸으로 겨울을 지탱하고 있다. 산도 덧칠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골격만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비울 것을 비울 줄 아는 자연의 지혜는 동국대학교의 겨울풍경을 연출해 내는 중요한 킷그림이다.

지난 15년간 재동국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왔던 녹원스님. 11월 25일 오후 4시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장직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여일이 지난 후 동국대 본관 이사장실에서 녹원스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버틴 후의 마음은 어떠한지? ‘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 가르침따라 소임 다해

자리 비워줘야 뒷사람 더 많은 일

“마음이란 을 떠나갈 때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연을 따라 오고가는 것이기에, 세상의 변화에 따라 오고 가는 상황의 차이는 있어도 본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동국대학에서 많은 소임에 최선을 다 했고 이론 것도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을 했으니 이제 자리를 비워 주어야 뒷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일산병원도 내가 개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만큼은 했으니 거기에 만족하고 다른 분이 더 지혜롭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기에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갔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를 1년 이상 지키기 어려운 종단 상황에서 32년간 종단을 안정 시킨 현직 총무원장이 특별한 분구나 외압도 없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스님은 열게 웃으면서 “오래된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했지만 그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똑 같아요.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종도로서 일이 주어지면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일을 다 했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을 위해 자리를 옮겨 가는 것이 순리니까요. 그때 총무원장을 맡은 동기가 승려대회라는 초보적인 논의구조였기

수행으로 지혜 쌓고

선행하여 복 짓기를...



녹원스님 (직지사 회주)

소유하고 있을 때 집착하지 않았기에 버린 후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이 선사들의 가르침이다. 1968년부터 32년간 이사직을 맡았고 그 절반인 15년은 이사장 소임을 맡아 공심공심으로 학교 발전

에 그 긴박한 상황이 정리된 후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동국대 이사장직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 처음 맡은 것도 내 의지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총장과 이사장이 다 학교행정을 더 이상 총괄



◇동국대 정각원 앞에 선 녹원스님. (사진: 불교와 교육 문화)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동국대학이 운동권 학생들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청와대 행정수석 이 아무개씨가 찾아 와서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국대 동문인데 애교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과 병원설립(원래는 전국 각 도·광역시·도 불교병원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불교방송국 설립, 경향포교의 현실화 등 완력을 세운 일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지요.”

녹원스님은 30년이 넘도록 교육불사의 현장을 뛰었지만 사실 활약산 직지사를 오늘의 사격으로 일신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기림봉사에도 20년 이상을 전념했다. 처음 출가할 때 그러니까 1941년 이후 27여 년 간 직지사는 공부러려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고 오는 썰밭에 의존하는 정도의 실정이었다. 40년 전 사망대사가 출가한 겨울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다. 1957년 직지사 교구본사로 승격되고 이듬해 본사 주지를 맡으면서 직지사를 중흥하려는 녹원스님의 행보는 거침없이 이어 나갔다. 교구본사 승격을 기해 1천일기도를 입재하며 절의 위엄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직지사는 녹원스님에게 고향보다 각별한 마음의 고향인 셈이다.

그렇다면 기림봉사와 교육불사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불사는 모두가 한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일이라든 뭐니까? 부처님을 위하여 일이 불사고 반중생이 부처님의 종자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 일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이롭게 해야 사방법체가 안락한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깊을 줄 모르는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불사도 기림봉사도 다 부처를 위하여 중생을 위한 일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불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수행으로 지혜 쌓고 선행하여 복 짓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동국대학이 운동권 학생들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청와대 행정수석 이 아무개씨가 찾아 와서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국대 동문인데 애교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과 병원설립 원대는 전국 각 도(道)마다 불교병원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불교방송국 설립, 경향포교의 현실화 등 원력을 세운 입들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지요.'

녹원스님은 30년이 넘도록 교육불사의 현장을 뛰었지만 사실 황야산 직지사를 오늘의 사격으로 일신시킨 장본 인이기도 하다. 기림불사에도 포박 30년을 진력했었다. 처음 출가할 때 그러니까 1941년 이후 20여 년 간 직지사는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고 오는 썰밭에 의존하는 정도의 실정이었다. 40년 전 사명대사가 출가한 겨울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다. 1957년 직지사가 교구본사로 승격되고 이듬해 본사 주지를 맡으면서 직지사를 중흥하려는 녹원스님의 행보는 거침없이 뻗어 나갔다. 교구본사 승격을 기해 1천일기도를 입재하며 절의 외형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직지사는 녹원스님에게 고향보다 각별한마음의 고향인 셈이다.

그렇다면 기림불사와 교육불사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불사는 모두가 한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일이란게 뭐니까? 부처님을 위하여 일이 불사고 만중생이 부처님의 종자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 일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이롭게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이롭게 해야 시방법계가 안락한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불사도 기림불사도 다 부처를 위하고 중생을 위한 일이기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불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유치원생과 어머니에게 5계를 내리는 장면(사진:불교와 교육문화)

짓고 복을 지어 지혜의 종자를 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불사잘한 사람이겠지요.'

지난 여름 녹원스님은 두툼한 책 한권을 출간했다. 교육불사 현장을 총횡무진 달력 은 깨적(깨적들을 담은 <불교와 교육문화>다. 각종 행사에서의 연설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책의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스님의 진절절한 당부 곳곳에 묻어 있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곁집이 당부한다. 스님의 상좌들은 물론이고 가까이서 스님을 모셔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을 복혜양족존(福慧兩足尊)이라 하지 않습니

학생들의 필독에 연비를 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지?'하며 격려하는 그 따스함을 상좌들은 그다지 느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작은 실수에도 모진 질책을 하는 스승의 '깊은 정'을 모르는 상좌도 없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스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매사를 이해해 주면 유아해집니다. 나 역시 스승에게 엄하게 교육 받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 서인지 늘 제자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보다 잘 하라는 격려가 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엄하고자 이해자는 것이 아니예요.'

오랜 시간 지켜 온 자리를 털고 일어난 녹원 스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산으로 돌아가면 산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양식만 훅 내며 자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백장선사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산에 들어가서도 수행과 포교의 본분사에 열중하고 대중외교도 해야지요.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산으로 돌아가도 할일 많습니다 중생 이롭게하면 시방법계 안락

까? 복과 지혜를 함께 지닌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지혜를 얻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선행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스승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나라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공부가가 수승해 그 힘으로 여러 중생을 제도한다면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제도를 받을 것이냐. 제도 할 것이냐. 누구에게나 이 두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스님들에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녹원스님은 어느 스님보다 상좌들에게 엄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어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조차 분간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험고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슨 일에도 용기를 낼 것입니다. 학교를 떠나 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겨울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어 난채 또 한 켠의 나뭇잎을 만들어 내고, 겨울산은 골짜기만으로 남아 새봄의 힘찬 기운을 안으로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임연태 기자 yilm@buddhan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c@buddhania.com

76년부터 동국학원이사...세계적 불교학 산실로

녹원스님은?

1928년 경남 합천군 가이면 처인리 해인사 이랫마을에서 출생했다. 속명은 오인갑(吳仁甲), 법호는 영허(映虛). 1941년 황야산 직지사로 출가해 탄옹(炭翁)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직지사강원에서 이력을 머치고 선학원과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안거를 했다. 1948년 한양대종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으며 보문선원과 천불선원에서 수선안거를 계속했다.

1964년부터 20여년 간 학교법인 능인학원의 감사, 이사, 이사장을 지냈으며 1968년부터 74년까지 동국학원 이사, 76년부터 현재까지 동국학원 이사, 76년부터 1985년부터 2002년 12월 19일까지는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동국대의 내적 성장을 기해 학과신설과 건물신축, 부대시설과 산하 기관의 꾸준한 확대를 이룩했으며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의 유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세계적인 불교학의 산실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특히 불교병원 건립에 매진해 경주, 포항, 분당, 강남에 이어 일신에 초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효명스님

즐근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살아 어느덧 큰스님의 모습을 닮아버린 스님이 있다. 행동거지도 말투도 그렇고 법상에서 설법하는 모습도 영남없는 큰스님의 복사판 그대로다. 그래서 법상에 오르신 큰스님을 보면 큰스님을 닮은 도반이 생각나 문득 웃음을 짓기도 한다.

효명스님은 고산 큰스님 시봉이다. 강원에서 함께 공부할 때 말투와 행동거지를 어찌나 노스님같이 하는지 젊은 스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다. 유난히 꼳꼳한 자세와 엄격한 태도에, 공을 많이 들어 뺏뺏하게 풀먹인 무명웃을 즐겨 입었는데 결는질 한번 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 경을 읽을 때는 진지하고 긴장된 태도로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맑은 소임은 철저하여 빈틈을 용납하지 않는 고지식함이 줄줄 흘러나왔다.

언젠가 겨울안거에 선방 율령정진에 들어가려고 대중의 신청을 받는데, 효명스님이 며칠 말미를 주었으면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몸을 추스려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나 생각하



고 며칠을 지냈는데, 그 절 율령정진은 어렵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미 여러차례 율령정진을 마친 터라 꼭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 그런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알게된 사실은 효명스님의 고지식한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였다.

혹시 율령정진에 들어갔다가 대중스님들께 누라도 끼치게 될까봐 말미를 얻은 며칠동안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했다. 머리 힘을 얻어 함께 정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낮에도 따로 쉬 수 없는 꼭 짜인 강당생활에,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며칠 밤을 새웠으니 배겨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럿이 함께 정진하면 설혹 힘이 약한 스님이라도 대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남들 다 지는 밤에 혼자 깨어 하는 정진은 몇 배 힘이 드는 일이다. 미련스럽기까지 했던 그 일은 이후 대중율령정진 들어가기 전에 혼자 율령정진을 해 마친 괴박한 스님이라고 가끔씩 도반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물론 약의 없는, 깊은 애정에서 하는 말이었다.

다른 종교를 믿던 효명스님의 속가 모친이 아들

을 보러 절에 찾아왔는데 몇 가지 이유로 법당에 참배를 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스님은 아들을 만나러 왔으면 당연히 아들의 스승에게도 예를 표해야 하는 것이니 법당에 가서 참배할 것을 당부했단다. 그렇게 출가한 아들의 인연을 가지고도 불교의 인연을 맺지 못하던 모친을 7년 세월동안 꾸준히 설득하고 불법을 전해오다가 결국 기도의 원을 세워 불자로 만들었다. 출가한 몸으로 먼저 가족을 제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포교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확신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대중살이에 조금 머트러운 점이 있어도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성격이 간간한 효명스님은 그래도 할말은 해야 한다며 사심없는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혹 도반들의 소임에 실수가 있으면 대중이 불편해 할까봐 솔선해 대신 해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처를 좋아해서 팽주 자리에 있어도 도반들에게 차 우려주기를 즐겨하였고, 맛있는 차를 위해 약수를 뜨러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중이 산행을 갈 때면 대부분 간편한 복장을 편한 신발을 신는데, 유독 혼자 무명웃에 털신과 고무신을 고집하면서도 자신은 복장이 그것 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자신의 방식을 지키곤 했다.

“할말은 한다” 사심없는 지적

7년간 기도...모친을 불자로

그런 고지식한 모습으로 무장한 효명스님이지만 가끔씩 지대방에서 도반들과 격식 없는 자리를 함께 할 때면 나름대로 우스개 소리도 하고 소리내어 웃기도 하면서 어우러지는 대중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원을 마치고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는 일년에 한 월은 반드시 선방을 가도록 하겠다는 허락을 얻어 수좌와 소임을 겸하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월을 나지 않을 때는 정진중인 사형제들과 도반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대중공양으로 뒷바라지하고 자신도 다만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내어 보궁과 기도처를 찾아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주지소임을 맡고부터는 절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의 강의를 직접 챙기면서 신도교육은 스님이 시켜야 한다며 스님들로 강의를 채우는 열성을 보여준다. 강의가 끝나면 녹음테이프를 꼼꼼히 챙겨 듣는 치밀함을 가져 효명스님의 해원정사 불교대학 강의를 부탁받는 스님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 강의가 끝나고 식당에 몇 배 힘이 드는 일이다. 미련스럽기까지 했던 그 일은 이후 대중율령정진 들어가기 전에 혼자 율령정진을 해 마친 괴박한 스님이라고 가끔씩 도반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물론 약의 없는, 깊은 애정에서 하는 말이었다.

큰스님을 모시고 사는 주지소임이 수월하지도 자유롭지도, 또 뜻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이미 큰스님을 닮아버린 효명스님은 그런 생활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다. ■ 서산 부석사 주지